

# “교부금 개편·축소 반대…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초·중등 교육계, 반대 목소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수호 입장  
고등교육계 일부도 방향성 우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초·중등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축소를 추진하자 교육계는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등 교육 재정 확대가 아닌 교부금 축소 수단으로 고등교육재정 특별회계를 추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초·중등 교육의 일부 예산을 고등교육으로 넘기는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재정 특별회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 법안 등 3개 법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앞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고등교육(대학) 재정 확충 방안과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이에 초·중등 교육계는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교육계 모두 고등교육특별회계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지만 교부금 개편을 통한 방식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같은 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



15일 국회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유·초·중등 교육예산 축소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왼쪽에서 다섯 번째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신하은 기자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 호소문을 발표했다. 두 협의회는 “국제 비교에서도 정부 부담 공공재원 투자 수준이 고등교육은 OECD 평균의 37.3%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수준에서의 재정투자가 매우 부실하여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기필코 고등교육재정 특별회계 등 법률 제정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일부 고등교육계는 이번 고등교육 특별회계가 마련된 근거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가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는 16일 ‘고등교육 육성 아닌 교부금 축소의 수단이 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

회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고등교육 특별회계 추진 방향성을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이번 특별회계 구상에 담긴 국세분 교육세 3조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돼 초·중등 교육비로 쓰였던 돈”이라며 “초·중등교육의 질적 저하를 우려한 초·중등 학교 구성원과 시도교육청, 교육단체 및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축소를 밀어붙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부금 축소 논리는 대학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해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정부 논리대로라면, 지금보다 학령인구가 절반 수준으

로 줄어든 2040년에는 대학 예산도 그만큼 삭감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다.

현 대학 입학 정원 47만4996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33년부터 인구 절벽에 따른 신입생 급감이 예고됐다. 교육부는 2042년 입학 가능 인구는 현재 대입정원보다 31만명 적을 것으로 추정했다.

대학 위기 완화를 위해 조정되는 이번 고등교육예산 증액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번 방안대로라면 고등교육예산의 순수 증액 규모는 3조 2000억원(국세분 교육세 3조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0억원)이다. 이마저도 자체히 살펴보면 증액은 ▲대학혁신지원사업 9000억원 ▲대학·지자체·지역산

업·혁신기관간 협력지원사업(RIS) 380억원 ▲국립대 기자재 확충 2500억원 ▲국립대 노후시설 개선 6000억원 등이며, 신설은 ▲지방대 특성화 5000억원 ▲지역연구중심대학 3500억원 등으로 예산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기존 사업의 추가 증가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열악한 재정 구조와 학령인구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은 대학들은 최소한의 인건비와 운영비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지방사립대학과 전문대학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대교연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증액한 3조원 가운데 사업비 일부를 교직원 인건비와 경상비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실제 고등교육을 걱정하고 예산을 확충하려면 지금처럼 교부금 축소를 위한 논리로서가 아닌, 고등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에 따른 예산 확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가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일부 증액과 교부금 개편 등만 추진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교육 전체 예산의 증액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교육부, ‘헝가리어 능력시험’ 국내 도입

韓-헝가리 교류 강화 업무협약  
헝가리어 전문인재 양성 기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과 주한리스트헝가리문화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헝가리어과는 ‘국제 인증 헝가리어능력시험 국내 도입·운영’을 비롯해 한국과 헝가리 두 나라 사이에 언어·교육·문화 교류 등을 강화하기 위해 22일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헝가리는 동유럽 문화의 중심지로, 해가 갈수록 한국 영화와 드라마, 케이팝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2008년부터 헝가리 최고 인문대학인 헝가리부다페스트 엘테(ELTE)대학교

에 개설·운영 중인 ‘한국어 학과’의 최근 경쟁률은 10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제 인증 헝가리어능력시험’의 국내 도입·운영 발전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상호 협력 ▲국제 인증 헝가리어능력시험 국내 유치 관련 행정 협력 ▲업무 협약 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의 세미나 및 연수 프로그램의 상호 교류 지원 등을 약속했다.

메드비지 이스트반 주한리스트헝가리문화원장은 “이번 헝가리어능력시험이 한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한국과 헝가리 간 교육·문화 교류가 증진되도록 힘

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헝가리어과 학과장은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국제 인증 헝가리어능력시험이 헝가리어 전문 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며, 시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류혜숙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제 인증 헝가리어능력시험이 국내에서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이 시험의 국내 유치로 언어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 헝가리 두 나라 간 교류가 적극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제17회 차세대문화공간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차지한 호서대 실내디자인학과 이승주, 홍예원, 강유진 학생의 작품. /호서대

## 호서대, ‘차세대 문화공간 공모전’서 수상

우수상·장려상 등 9개팀 수상

호서대학교는 실내디자인학과가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에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제17회 차세대문화공간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비롯해 장려상 3팀, 입선 5팀 등 총 9개 팀이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엔데믹 시대의 새로운 문화소통공간에 대한 패러다임으로서 문화공간의 ‘융합과 하이브리드’를 주제로 개최됐다. 최종 수상작은 지난

17일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고, 시상식은 18일에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됐다.

우수상을 수상한 4학년 이승주, 홍예원, 강유진 학생의 작품은 ‘엔데믹 시대, 희귀동물과 만날 수 있는 언택트 문화소통공간’을 주제로 했다. 이들은 4000여 종이 넘는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DMZ의 자연환경과 조화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해 나가면서 희귀동물을 언택트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체험전시공간 ‘Breathing Veins’를 제안했다.

/신하은 기자

서울시교육청 유튜브 채널  
‘구독자 4만달성’ 이벤트

서울시교육청은 운영 중인 공식 유튜브 채널 ‘서울교육 유튜브’가 구독자 4만명을 돌파했으며 누적 조회수는 1614만회를 넘어섰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월에 3만명이었던 구독자 수는 약 10개월 만에 빠르게 증가해 이달에 4만명(4만320명)을 돌파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4만 달성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퀴즈 정답과 응원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 동국대, 수시 논술고사 경쟁률 ‘55.6대 1’

307명 모집에 1만7069명 지원  
약학과는 358.83대 1 기록

동국대학교는 20일 서울캠퍼스에서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를 실시한 결과 307명 모집에 1만7069명이 지원해 5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고 21일 밝혔다.

이번 논술전형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모집단위는 약학과로 6명 모집에 2153명이 지원해 358.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3학년도 동국대 논술은 고교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인문·자연계열별 3

문항씩 출제됐으며, 인문계열은 100분, 자연계열은 90분 동안 시험이 진행됐다. 인문계열은 종합적 사고능력과 표현능력을 평가하는 통합교과형, 자연계열은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도 및 적용능력을 평가하는 풀이과정 중심의 수리논술 문제가 출제됐다.

출제위원장인 김대룡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교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통합논술 측면에서 학업이수 능력의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출제 기조를 유지해 공교육 활성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 청담고, 서초구 이전 속도 서울교육청 학교용지 확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서울특별시와 서초구 잠원스포츠파크 부지를 청담고 이전을 위한 학교용지로 공급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난 14일에는 서초구와도 잠원스포츠파크 내 지장물 철거,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이행

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 잠원동 잠원스포츠파크부지(신반포로23길 66, 1만1608㎡)를 공시지가를 적용한 회계 간 재산이관(유상)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현 청담고 부지(압구정로 419, 1만3889㎡)는 같은 방식으로 서울시가 이관받아 학교 이전 후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